

## 12월 보건복지동향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중 주요내용을 발췌한 것임.

- 편집자 주 -

### ■ ■ ■ 「2010년 우수건강도서」 24종 선정 · 발표

-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출판업계의 건강도서에 대한 출판의욕을 고취하고자, 「2010년 우수건강도서」로 총24종을 선정 · 발표하였다.
  - 보건복지부가 작년에 이어 올해 2번째로 선정한 「2010년 우수건강도서」는 2009년 7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국내에서 초판 발행된 건강 · 보건 관련 창작 및 번역 도서를 대상으로 공모하였으며, 총 102종의 도서가 접수되어 심사 결과 일반인 부문 14종과 청소년 부문 10종, 총 24종이 선정되었다.
- 「2010년 우수건강도서」는 건강 · 보건의료 및 출판문화 등 관련 분야 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도서의 내용, 창작성,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하여 심사하여 선정된 것으로,
  - 일반인 부문에서는 ‘건강 · 음식 · 질병에 관한 오해와 진실(폴린 캠벨, 열린과학)’ 등 14종, 청소년 부문에서는 ‘건강한 몸 올바른 음식(박원석, 소금나무)’ 등 10종이 선정되었으며, 국내 창작 도서(13종)가 번역 도서(11종)보다 많이 선정되었다.
- 보건복지부는 「2010년 우수건강도서」로 선정된 도서에 대해 우수건강도서 선정패를 수여하는 한편,
  - 해당 도서는 우수건강도서 상징도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 우수건강도서 배너와 선정도서 목록을 시 · 도 교육청, 지방자치단체(보건소), 도서관 등에 배포하여 널리 활용하도록 하며,
  - 보건복지부와 건강증진사업지원단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우수건강도서가 국민들에게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2010년 우수건강도서 선정결과 ( ■ : 시리즈 도서)

연번	도서명	저자(역자)	출판사(발행인)	구분	독자층
1	건강·음식·질병에 관한 오해와 진실	콜린 캠벨, 토마스 캠벨(유자화)	열린과학(정갑수)	번역	일 반 인
2	과자, 내 아이를 해치는 달콤한 유혹2	안병수	국일미디어(이종문)	창작	
3	굿바이 니코틴홀릭	김관욱	북카라반(이태준)	창작	
4	내 아이에게 대물림되는 엄마의 독성	이나즈 노리히사(윤혜림)	전나무숲(강혜숙)	번역	
5	Dr.우의 우울증 카운슬링	우종민	웅진리빙하우스 (최봉수)	창작	
6	똥은 기똥차다	남호탁	넥서스BOOKS (안용백)	창작	
7	베이비 플랜(부부가 함께하는 완전한 계획 임신)	박문일	동아일보사(김재호)	창작	
8	부모가 높여주는 내 아이 면역력	후쿠다 미노루, 이토 야스오(윤혜림)	전나무숲(강혜숙)	번역	
9	불면증 약없이 극복하기 - 치료자용 / 환자용	잭 D. 에딩거, 콜린 E. 카니 (이은)	청년의사(이왕준)	번역	
10	‘술’ 사람이 선택한 술, 술이 선택한 사람	다사랑병원/ 다사랑한방병원(중앙)	느낌이 있는 책 (강창용)	창작	
11	아이 두뇌를 살리는 똑똑한 편식	이혜영	푸른육아(신영일)	창작	
12	엄마는 365 주치의	신윤정	이가서(하태복)	창작	
13	우리 아이 올바른 지식으로 좋은 눈을 만듭시다	아마키 사치 (박선무, 고선윤)	중앙생활사(최점옥)	번역	
14	위암 100문 100답	국립암센터 위암센터	국립암센터(이진수)	창작	
15	건강한 몸 올바른 음식 (물음쟁이 생각쟁이 논리쟁이 시리즈 중 제8권)	박원석 글, 이지원 그림	소금나무(박원석)	창작	청 소 년
16	괜찮아 괜찮아 두려워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슬퍼도 괜찮아	제임스 J. 크라이스트 글, 정은영 그림(홍성미) / 제임스 J. 크라이스트 글, 서영경 그림(홍성미)	길벗스쿨(이종원)	번역	
17	대한민국 어린이 건강 프로젝트	류은경 글, 허문선 동화, 유명희 그림	명진출판(안소연)	창작	
18	바이러스, 안돼!	실비 지라르데 글, 푸이그 로사도 그림(이효숙)	초록개구리 (이은수)	번역	
19	밥맛이 꿀맛이야 / 초롱초롱 눈이 건강해	신동길 글, 김우선 그림 / 강자현 글, 김진화 그림	웅진주니어 (최봉수)	창작	
20	어린이 인체박사의 신나는 몸속여행	구드룬 슈리 글, 이형진 그림(조국현)	명진출판(안소연)	번역	
21	어린이를 위한 질병 백과사전 ‘주사기와 반창고’	메이커 보르더만 글, 벤저민 르로이 그림(정신재)	산수야(권윤삼)	번역	
22	우리는 모두 달라요	오치아이 미도리 외(박은정)	쥬푸른길(김선기)	번역	
23	인체와 건강	에마누엘 르프티 글, 클레르 브르니에 그림 (김지현)	쥬큰북작은북 (김혜정)	번역	
24	치솔맨 도와줘요! / 과자 마녀를 조심해!	정희재 글, 박선영 그림 / 정희재 글, 김영수 그림	책읽는곰 (임선희)	창작	

## 한-미 FTA,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이행 의무 3년 유예

- (협상결과) 지난 11월 30일부터 진행된 한-미 FTA 추가협상 결과, 양국은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따른 이행 의무를 협정 발효 후 3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하였다.
  - 이는 복제의약품 시판허가와 관련된 허가-특허 연계의무는 그동안 2007년 6월 30일 정식 서명 시에 우리측 피해 사항 중 하나로 거론되어온 것으로,
  - 당초 협정은 시판방지조치 의무이행에 대한 FTA 분쟁해결절차 적용을 18개월 유예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금번 추가협상으로 이행 자체를 3년간 유예하는 성과를 얻었다.
    - \* 허가-특허 연계제도: 제네릭 의약품 허가 신청시, 신청사실을 허가 신청자가 특허권자에게 통보하고, 통보받은 특허권자가 이의제기시 특허쟁송이 해결될 때까지 허가권자가 허가를 금지하는 제도
- (의의) 3년간 유예기간을 얻게 됨에 따라, 국내 제약산업의 복제의약품 출시 지연에 따른 피해액을 그만큼 줄일 수 있게 되었으며, 나아가 국내 제약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준비기간을 확보하게 되었다.
  - \* 참고로, 한-미 FTA 경제적 효과에 대한 11개 국책연구기관 분석(2007.4월)에 따르면, 허가-특허 연계로 인한 제약업계의 기대매출손실 (제네릭 의약품 시판이 9개월 지연될 경우 상정)을 연간 367~794억원으로 추정
- (대응전략) 정부는 국내 제약산업이 조속히 신약개발 등을 통한 국제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07.6월 한-미 FTA 계기 국내보완대책의 하나로 발표한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3년 유예기간동안 앞당겨 집중 추진하고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2011년도 10대 유망사회서비스에 253억 집중 지원

- 보건복지부는 12월 9일 부산 BEXCO에서 「10대 유망사회서비스」의 비전선포식을 가졌다.
  - 이날 행사에서 진수희 장관은 ‘따뜻한 사회서비스로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2011년부터 10대 유망사회서비스를 집중 지원한다고 밝힌다.
  - 이날 행사에는 보건복지부 장관 진수희 외에도 박서춘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지원단장 및 300여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하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재도약을 위해 결의를 다진다.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역의 서비스 수요를 반영하여 사업을 기획·시행하는 사업으로 기존 사회복지서비스와는 달리 지자체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발휘되

는 사업이다.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기존 사회복지서비스의 획일적 현물지원·기초수급자 위주 지원이 아니라 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서비스, 정신장애인 토탈케어서비스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 모델을 제시하고 바우처 방식으로 구매력을 보전하여 수요자 중심의 복지를 추구한다.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2007년 8월에 시작하여 2010년 10월 말 현재 307,144명에게 서비스를 지원하고 17,231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 그러나 이 사업은 전체 09년 기준 매출액 1억 이하 사업체(788개)가 전체(911개)의 87%에 달하는 등 사업 규모가 영세하며 인지도 있는 브랜드의 부족으로 시장 육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보건복지부가 9일 발표하는 4대 분야 10개 사회서비스의 「10대 유망사회서비스」는 이러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영세성과 시장 문제의 브랜드 중점 육성 전략이다.
- 유망사회서비스는 사회적 필요가 크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서비스로 아동발달지원, 노인건강생활지원, 장애인사회참여지원, 건강가정지원 등 총 4개 분야의 10개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
  - 이들 사업은 기존에 널리 시행되던 사업(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 등)과 새로 발굴한 유망 서비스(정신질환자 토탈 케어 서비스 등)를 중심으로 사업 실적 분석 및 전문가 논의를 통해 선정되었다.

#### 〈참고〉 10대 유망사회서비스 내역

유형	서비스 명
아동발달지원	① 아동 발달지원 서비스,                      ② 취약계층 아동정서발달 지원서비스, ③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            ④ 인터넷·게임 중독 아동 치료서비스
노인건강생활지원	⑤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            ⑥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 여행 서비스
장애인사회참여지원	⑦ 장애인 보조기구 렌탈 서비스,            ⑧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건강가정지원	⑨ 나홀로 아동 가정 돌봄 서비스, 정신건강 케어서비스

- 보건복지부는 10대 유망 사회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체감도 높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서비스의 브랜드화를 통해 시장 형성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계획이다.
- 이날 행사에서는 진수희 장관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따뜻한 사회서비스로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한 10대 유망사회서비스 추진 방향을 설명한다.
- 진수희 장관은 이날 선포 및 격려사에서 "2011년에 신규 사업 예산 253억 원을 포함한 1353억 원을 10대 유망사회서비스에 집중지원 할 것"이라고 밝힌다.

- 또한 지역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육성하기 위해 “매년 우수 사회서비스 평가대회를 열어 지역이 발굴한 우수 서비스가 유망 사회서비스로 전국에 확산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다.
- 비전선포식 이후에는 2011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업무방향에 대한 설명과 10대 유망사회서비스 중 하나인 ‘나홀로아이 가정 돌봄 서비스’에 대한 제공기관 교육, 컨설팅이 이어진다.

**2011년 새해 보건복지부 예산 33조 5,694억원으로 최종 확정**

- 2011년 새해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
- 국회심의회과정에서 32개 사업 709억원이 증액되고 9개 사업 159억원이 감액되어
  - 내년도 보건복지부 총지출 규모(예산+기금)는 당초 정부안 33조 5,144억원에 비해 550억원이 증가한 33조 5,694억원으로 확정되었다.

**<2011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단위: 억원)

구분	'10년(A)	'11년		정부안대비		금년 대비	
		정부안(B)	국회최종(C)	C-B	%	C-A	%
총지출	310,195	335,144	335,694	550	0.16	25,499	8.2
<b>[예산]</b>	194,736	206,328	206,922	594	0.28	12,186	6.3
○일반회계	192,169	204,373	204,952	579	0.28	12,783	6.7
○특별회계	2,567	1,955	1,970	15	0.81	△597	△23.3
<b>[기금]</b>	115,459	128,816	128,772	△44	△0.03	13,313	11.5
○건강증진기금	17,630	17,902	17,960	58	0.32	330	1.9
○국민연금기금	95,807	109,237	109,102	△135	△0.12	13,295	13.9
○응급의료기금	2,022	1,677	1,710	33	1.97	△312	△15.4

- 새해 예산의 부문별 주요 중점 투자 내역은
  - 사회복지 분야는 금년 대비 2조 3,661억원(9.9%)이 늘어난 26조 2,993억원이 반영되었으며,
    - ① (탈빈곤) 일과 복지를 연계한 탈빈곤 정책추진을 위해 재정지원 일자리를 금년보다 32천개가 늘어난 356천개로 확대
    - ② (저출산 해소) 보육료 전액지원을 전제 영유아 가구로 확대(상위 30% 제외)하는 등 중산층까지 아우르는 무상보육 토대 마련
  - \* 4인가구 기준 무상보육 소득인정액: 월 258만원 → 월 450만원

- ③ (장애인 복지) '10년 장애인연금 도입에 이어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조기 도입('11.10월) 함으로써 장애인 복지의 제도적 기반 완비
-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7조 2,701억원을 반영, 결핵, 정신보건,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2011년 예산의 부문별 주요 중점 투자 내역>** (단위: 억원)

구분	'10년(A)	'11년		정부안대비		금년 대비	
		정부안(B)	국회최종(C)	C-B	%	C-A	%
○ 사회복지	239,332	262,655	262,993	338	0.13	23,661	9.9
- 기초생활보장	72,865	75,168	75,168	-	-	2,303	3.2
- 아동·장애인등	8,933	10,405	10,512	107	1.0	1,579	17.7
- 공적연금	95,811	109,241	109,106	△135	△0.1	13,295	13.9
- 보육및저출산	22,022	25,561	25,600	39	0.2	3,578	16.2
- 노인	35,166	36,986	37,306	320	0.9	2,140	6.1
- 사회복지일반	4,535	5,294	5,301	7	0.1	766	16.9
○ 보건	70,863	72,489	72,701	212	0.3	1,838	2.6
- 보건의료	17,037	15,387	15,599	212	1.4	△1,438	△8.4
- 건강보험	53,826	57,102	57,102	-	-	3,276	6.1

□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됨에 따라 복지부는 서민보호 및 미래대비를 위해 동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장애인 보장구 지원 확대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보장구의 보장성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 금년 12월 15일부터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이하: 전동보장구)를 구입한 장애인은 구입 후 1년 6개월이 지나면 전지(배터리)에 대한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이에 따라 약 5만7천명의 장애인이 전지 구입가에 따라 최대 128,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 \* 지원내용: 기준금액(전지: 16만원) 이내로 구입할 경우 구입가의 80%, 기준금액 이상으로 구입할 경우 기준금액의 80%

- 더불어 지체 장애인 등에 지원되던 전동보장구의 지원 대상을 심장·호흡기 장애인으로 확대하여
  - 심장이나 폐 기능 저하로 외출 등의 어려움을 겪었던 1만 6천명 이상의 장애인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전동보장구 전지(배터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전지를 구입한 후 건강보험공단지사에 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를 하면 된다.
  - 전동보장구를 지원받고자 하는 심장·호흡기 장애인은 심장내과 또는 호흡기내과 등을 방문하여 '장애인보장구 처방전'을 발급받아 건강보험공단의 확인을 받은 후 해당 보장구를 구입하면 된다.
- 또한 내년 1월 1일부터는 장애인보장구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만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보장구 업소·품목 등록제」도 시행된다.
  - 장애인보장구 업소·품목 등록제는 보장구의 허위·부당청구를 방지하고 보장구의 사후관리(A/S문제)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업소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실시하는 제도이며,
  -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 정보는 “건강IN 홈페이지(<http://hi.nhi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9월 중순부터 12월말까지 업소·품목 등록 유예기간 부여, 12.13현재 등록업체: 1,514여 개소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자격도 확대된다.
  - 금년 12월 15일부터 '관광취업(H-1)' 자격으로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다.
    - 지금까지는 유학(D-2), 연수(D-3, D-4), 교수(E-1~E-4), 기업투자(D-8) 등의 자격으로 90일 이상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다.
    - \*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 체류 자격은 붙임 참조. 현재 재외국민을 포함하여 외국인 104,331명(2010년 8월말 기준)이 지역가입자 자격을 보유
    - 이로써 약 450명의 관광취업 자격 외국인이 추가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고 싶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 내년 1월 1일부터는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를 이동전화(휴대전화)로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그 동안은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만 고지서를 통보받을 수 있었다.
  - 이동전화로 고지서를 받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건강보험공단 본부 또는

- 지사에 제출하면 본인이 지정한 이동전화번호로 건강보험료 납입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다.
- 또한, 내년 상반기 중에는 모바일 납부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어 이동전화로 건강보험료 납부도 가능해진다.
  - 또한 내년 1월 1일부터 한의원 및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의원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일부 노인의 외래본인부담액이 줄어든다.
    - 현재는 총 진료비가 15,000원을 넘지 않으면 1,500원을, 넘으면 총 진료비의 30%를 본인부담하게 되어 있어,
      - 한의원의 경우 총 진료비에 약값이 포함되어 1,500원을 넘는 사례가 있어 본인부담액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 \* 본인부담액(예시): 1,500원(총진료비 15,000원) → 4,800원(총진료비 16,000원)
    - 내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이 한의원에서 투약 처방을 받고 총 진료비가 15,000원 초과 20,000원 이하 시 2,100원만 부담하게 됨으로써, 현행(최고 6,000원\*)보다 최대 3,900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 \* 20천원 × 30%(외래본인부담률)
    - 한편, 의약분업예외지역 의원의 경우도 한의원과 같이 총 진료비에 약값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 같은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 ■ ■ ■ 보건복지부 2011년 연두업무보고

- 보건복지부는 12월 22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모시고 2011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 “내년은 본격화되고 있는 경제 성장의 온기가 우리사회 구석구석으로 골고루 퍼지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강조하면서,
  - 보건복지 정책이 향후 10년을 내다보면서 근본적인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한 시점임을 역설하였다.
    - 정책 패러다임 변화의 방향으로는 국민의 기본생활을 국가가 충실하게 보장하는 토대 위에 다음의 3가지 사항을 제시하였다.
      - ① 수급자 위주의 소극적인 보호 → 일을 통한 『적극적인 탈빈곤을 지원』하는 시스템
      - ② 양적 확대와 기반구축 → 『내실화와 지속가능성』의 제고
      - ③ 산업적 고려 미흡 → 고용창출력과 우수한 인적 잠재력이 성장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적극적 정책추진

□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기조하에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맞춤형 복지 확대 등 내년도 7대 핵심 정책과제를 보고하였다.

- ①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맞춤형 복지 확대
- ② 탈빈곤 「희망 사다리」 및 「나눔문화 확산」
- ③ 미래를 대비한 「저출산고령사회대책」 강화
- ④ 「보건의료 7대 강국으로 도약」을 위한 비전 제시
- ⑤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시스템 구축」
- ⑥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2단계 도약」
- ⑦ 「보건복지분야 일자리」 향후 2년간 36만개 창출

## ■ ■ ■ 국민연금, 내년 총 100조원 규모 위탁운용 계획

□ 보건복지부는 2011년도에 국민연금기금 금융부문 전체 자산(약 336조원)의 약 30%인 100조 4천억원을 위탁운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 자산별로는 국내주식은 55.0%(33조 2천억원), 국내채권은 8.5%(18조 1천억원), 해외주식은 9.0%(19조 9천억원), 해외채권은 6.0%(8조 2천억원), 대체투자는 8.0%(21조원)를 위탁운용할 계획이며, 위탁운용비중의 허용범위는 전년도 수준(국내주식의 경우 ±10%p)을 유지하기로 했다.

○ 이에 따라, 2011년말 위탁운용 규모(전체 금융자산의 29.9%, 약 100조 4천억원)는 2010년 10월말 위탁운용 규모(전체 금융자산의 23.7%, 약 74조 3천억원)대비 약6.2%(약26조원 1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국민연금은 외부 자산운용사의 전문성과 운용효율성을 활용하여 기금운용 수익률을 제고하고, 투자결정을 분권화하기 위해 위탁운용을 추진하고 있다.

○ 자산군별로 살펴보면, 국내주식은 위탁운용사의 Active 운용에 대한 전문성을 활용하여 투자수익률을 제고하고자 위탁운용 비중을 확대('10년 50.0% 대비 5%p 증가)하였다.

○ 국내채권의 경우 직접운용은 안정성 위주로 운영하고 전문성이 높은 위탁운용사를 통해 회사채 등 신용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위탁운용의 비중을 확대('10년 6.0% 대비 2.5%p 증가)하였다.

○ 해외주식의 경우 '09년말 직접운용을 시작하였으므로 급격한 비중확대를 지양하고 직접운용의 확대는 허용범위(±10.0%p)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여 위탁운용 비중을 전년과 동일하게 설정(90%)하였다.

- 해외채권은 낮은 금리의 미국국채 비중을 축소하고 수익률은 보다 높으나 리스크가 있어 전 문성 활용이 필요한 신용물 및 이머징국가 채권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위탁운용 비중을 확대('10년 40% 대비 20%p 증가)하였다.
- 대체투자는 국내외 대체투자를 거의 대부분 위탁운용으로 집행하므로 위탁운용의 비중을 확대('10년 72.5% 대비 7.5%p 증가)하였다.
- 아울러, 국민연금공단(기금운용본부)에서 보다 적극적인 운용을 통해 기대수익률 외에 추가로 달성해야 할 목표초과수익률을 2010년도와 동일한 수준인 0.45%로 결정하였다.
  - 동 목표초과수익률은 국민연금공단(기금운용본부)의 운용능력을 전년과 동일한 수준(국내 외 자산운용사의 상위 20%)으로 보고, 내년의 국내주식 비중(18.0%)과 해외주식 비중(6.6%)을 고려하여 산정하였다.
- 이러한 내용은 12월 23일(목) 2010년 제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의결되었다.

## ■■■ 지자체 우수복지정책 공모결과 발표

-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서민정책·일자리창출」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시행한 우수사례 공모전 심사결과를 발표하였다.
  - 복지부는 전국의 광역 및 기초단체에서 제출한 141건의 사업을 대상으로 창의성·민간자원 연계정도 및 전국 확산가능성 등을 심사하여 대상 1건, 최우수상 2건, 우수상 17건을 선정하였다.
- 대상은 지역내 학원, 병원, 중소상점 등 민간 복지자원을 확보하여, 온라인바우처로 저소득주민에게 제공해주는 서울시의 「아름다운 이웃, 서울디딤돌」이 차지하였다.
  - 「서울디딤돌」 사업은 민간자원 연계와 나눔활성화에 기여한 점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현재까지 4,772개 기부업체가 참여하여 49,278명에게 약34억원 상당의 물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 최우수상은 서민정책분야에서 경상남도 「중증장애인도우미뱅크」가, 일자리분야에서 경기도 화성시의 「노인짚풀수공업품 제작판매사업」이 각각 선정되었다.
  - 경상남도의 「중증장애인 도우미뱅크」는 매년 지방비 54억원을 들여 1·2급장애인 및 지적·자폐장애인 약 3,000명에게 간병·가사·활동보조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약2,000명의 도우미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 경기 화성시의 「노인짚풀수공업품제작판매사업」은 노인 30명이 만든 짚풀수공업품을 브랜

드화(“지프로”)하여 판매, 제작체험, 전시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한편, 기능 전수를 통해 수익 모델을 확산 하는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 또한, 복지연대망을 구성하여 소년소녀가정 및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과 결연 시켜주는 「대전시 복지만두레」, 소외계층 대상으로 자원봉사자를 연계해주는 「남양주 희망매니저」, 사회복지 가능성이 높은 노숙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자 또는 훈련보조교사로 활동하도록 지원하는 「서울시 노숙인 도우미사업」 등 17건이 우수상으로 선정되었다.
- 보건복지부는 1월중 시상식과 발표대회를 갖고 우수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 2011년 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사전예고

- 보건복지부는 2011년 4개 항목에 대해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사전예고하였다.
  - 기획현지조사 항목은 ① 의약품 대체청구기관 ② 척추수술 청구기관 ③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 실태 ④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조사이다.
  - 기획현지조사는 일반적인 정기조사와는 달리 건강보험 제도 운용상 필요하거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사안 등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부당 청구를 사전에 예방하고 올바른 진료비 청구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이다.
  - 기획조사 항목은 의료계, 소비자 단체,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획현지조사항목선정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선정하며,
    - 조사 시기는 “의약품 대체청구기관” 2/4분기, “척추수술 청구기관 실태”는 3/4분기,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 실태” 및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는 4/4분기에 실시하며, 각 항목 별로 약 30여개 기관을 조사한다.
-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사전 예고된 4개 항목에 대해 관련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도 게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예고를 통해 조사대상기관에 예측가능성을 부여함으로써 조사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자율시정의 기회 제공 등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